

힌두교적 세계관, 인도

- 이상오 선교사 / 2003. 7. 18 -

안녕하십니까? 인도 남부 벵갈로르에서 온 이상오 선교사입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문화적응과 언어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고등부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들이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선교지는 스리랑카 였습니다.

스리랑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청년부 때 첫 단기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선교여행을 통해서 지구 한 켠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가난과 소외로 지쳐 있으며 이들에게 복음마저 없다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젊을 때 2년 정도를 선교지에서 드리고 싶은 단순한 동기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베이스에서 2년간 팀 사역을 하였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장기선교사로 스리랑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서남아시아를 생각하게 되었고 서남아시아 선교의 중심은 10억 인구와 4,5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인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인도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10억의 인구와 다양한 종족,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용어로 힌디와 영어를 사용하고 식문화와 의문화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착한 벵갈로르는 인도남부의 카르나타카 라는 주의 수도이며, 인도의 5대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6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해발 1000미터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나무가 많아 인도의 정원도시, IT산업의 중심지이고 많은 IT 인력들을 배출해 내고 있어 인도의 실리콘밸리 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벵갈로르에 정착하게 된 것은 도시에 정착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점차 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벵갈로르를 수도로 하고 있는 카르나타카 주는 남한의 2배 약간 넘는 정도 크기에 6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남인도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한국보다 더 오래된 선교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전체인구의 2%정도입니다. 카르나타카 주는 0.8%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교의 타겟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인도 선교의 장애요인을 든다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힌두교적 세계관과 카스트제도, 민족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과 종교는 따로 생각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종교적이고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85% 정도는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3억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집에 가 보면 많은 힌두 신들의 사진 한 켠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게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헌법상 카스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아직도 강한 카스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카스트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는 사제인 브라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카스트제도는 브라만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평생 브라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지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지생활을 해야하고 자손도 계속 그 생활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카스트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지금 현재의 인도 크리스찬의 70퍼센트는 집단 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천민계급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최하 천민층의 종교라고 치부합니다.

인도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인도 통치는 이들에게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 통치를 통해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부를 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식민통치를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때 같이 들어 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는 제국주의 종교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힌두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는 힌두의 나라이며 힌두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도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힌두 극우세력들은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색출해내서 추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날로 흥황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사람의 제도와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구원이 되어야 하고 선교지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지도자 양육과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현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더라도 현지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배가 되어진다면 선교사의 임무는 다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도의 현실을 바라보면 선교는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갖게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도 선교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인내를 가지고 농부의 심정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면 열매는 주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아웃리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선교현장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역지를 매년 꾸준히 방문하셔서 지속성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되고 기도도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교지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